

# 항구포차에 크루즈... 목포관광 흥행 '쭉~'

항구 특색 담은 '항구포차' 개시 목포항 배경으로 버스킹도 펼쳐 대반동 해안엔 '스카이워크'도 즐길거리·먹거리 등 인프라 다채

지난해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강자로 무섭게 떠오른 목포가 올 해 다시 한번 주목 받을 것 같다.

올 해 초 대한민국 4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발전의 호기를 맞은 목포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이 시기를 오히려 지역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해 근대역사문화 자원 및 맛의 관광상품화, 국내최장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전망대와 해상데크 등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은데 이어, 올 해도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선보인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자리한 삼학도의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다.

항구의 맛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목포 항구포차'가 오는 12일 첫 손님을 맞는다. 시는 맛의 도시 목포에 걸



목포관광 새로운 관광 인프라인 '삼학도 크루즈' /목포시

맞는 명품 포차단지 조성을 목표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포차 운영자 15명을 선정했다.

항구다운 특색을 담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으로 포차에서는 유달산과 목포항을 배경으로 버스킹도 펼쳐져 입과 눈과 귀가 다 함께 즐거울 듯하다. 목포 항구포차는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의 19:00 ~ 익일 02:00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의 17:00 ~ 24:00까지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된다.

삼학도 관광유람선도 취항한다. '목포 항구포차' 개장일과 같은 날 첫

운항을 시작한다.

유람선은 삼학도 선착장을 출항해 갯바위~평화광장~목포신항만~현대삼호중공업~장좌도~목포대교 등을 거쳐 삼학도로 돌아오는 1시30분 코스로, 주간 2회 야간 1회 등 하루 3회 운항될 계획이다.

야간에는 선상 폭죽공연도 계획하고 있어 고하도와 목포대교 야경,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등과 함께 목포의 밤바다를 화려하게 밝히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세월 지역민들이 사랑하는 명소였지만, 별다른 즐길거리가 없어 발

길이 뜸해졌던 목포 대반동 해안에는 조만간 새로운 관광자원이 들어선다.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목포대교, 서해의 낙조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포토존을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14억원을 들여 바다 위로 돌출되어 있는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 있다.

길이 54m, 높이 12m~15m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바닥은 투명한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스티플감을 선사한다. 환상적인 뷰와 짜릿한 스티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기대된다.

6월말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톨릭 목포성지의 '레지오마리아 기념 성당'과 연말 개관 예정인 '국립 호남권생물자원관'도 꼭 들러야 할 명소가 될 듯하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5일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선정을 기념하고, 미래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목포 관광이 다시 한 번 화려한 비상 날개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동네방네

### 상주시 협오시설 개선사업 성과 특특

상주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주민 협오시설이 친환경시설로 개선되고 있다.

4일 상주시에 따르면, 축산환경사업소가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착수, 준공해 각 공정마다 처리 효율 증가로 예살절감은 물론 관내 양돈농가가 축분뇨 처리비용 경감의 성과가 나왔다. 개선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23억을 확보해 공정, 악취, 기계, 전기 분야에 30건의 개선사업이 이뤄졌다. 특히 사업장 내 탈취탑, 탈취기 소모품 교체, 악취포집설비, 탈취기 정압 밸런스 등 악취저감시설 개선으로 사업장 부지경계와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관리기준에 비해 현저히 저감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 영양군 29일까지 사업체 조사 실시

영양군은 통계청과 함께 지역내 사업체 1461곳의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한 2020년 사업체조사(6월 4일~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체조사 조사기준시점은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한다. 조사원 3명이 각 사업체를 방문해 11가지 전국 공통항목(▲사업체명▲사업장 대표자▲창설연월▲사업의 종류▲연간 매출액 등)을 조사하고, 시도별 맞춤형 특성항목 2가지(▲사업장 점유형태▲활동(영업) 시간)에 대해 면접 조사한다. 면접조사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담시설(요양시설, 병원 등)과 다중이용시설, 외부인 방문을 제한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부산시 온라인서 청년정책 소통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6월 5일 오후 7시부터 부산청년정책네트워킹(이하 부청넷) 온라인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부청넷은 청년의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민참여기구다. 올해는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 '연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정책토론 등을 진행하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구성원과 소통한다. 또, 올해는 미리 정해진 분과에 신청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한 공모를 통해 분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청년들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 임대료 지원 제외 국제업무단지 상인 '아우성'

"매출 80% 급감, 상권 붕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 공항입점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추가 지원이 시행되는 반면, 상권이 붕괴된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입주자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 공항 입점 면세점과 모든 상업시설은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3~8월 임대료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75% 감면된다. 앞서 4월1일 임대료 지원 방안에서 대폭 조정된 것으로 이번 감면은 3월부터 소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코로나19 지원대책에 국제업무단지는 제외돼 상인과 분양자들의 불만이 높다.

급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 조치는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임대료 납부유예가 종료된 8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율도 연 15.6%에서 5%로 낮춘다.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

하면서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상권이 붕괴된 국제업무단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국제업무단지 내 상가는 공항공사와 정부기관 공무원, 항공사 직원들이 주이용객이나 코로나19사태 이후 발길을 끊어 매출은 70~80% 이상 급감했다. 문을 닫는 업체가 속속 늘고 있으며, 오피스텔 공실율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업무단지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터미널 못지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국제업무단지"라며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토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서 상인들과 오피스텔 임대·임차인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창근 기자 mirax@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0

6월 5일 (금)  
음력 : 4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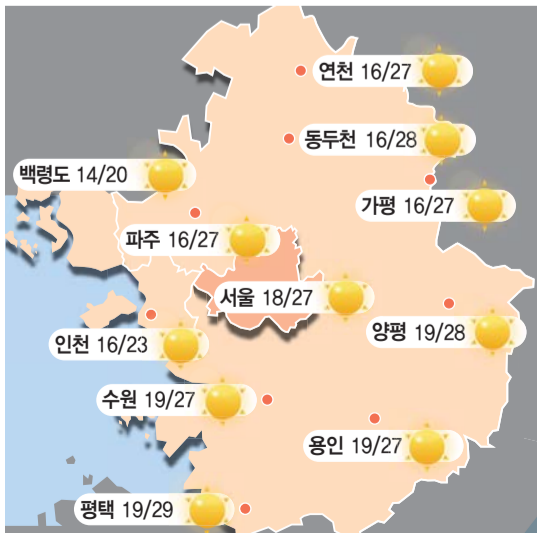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27 ~ 1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문경시, 200억 규모 '문경사랑상품권' 판매

문경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문경사랑상품권'을 개편 이래 처음으로 발행, 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관내 농협, 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모든 지점에서 1인당 월 40만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하고, 6월 말까지는 출시를 기념해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이후에는 6% 할인(명절 등 특별기간 10%)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금액의 70%



지난 1일 고운한 문경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중심상점가를 찾아 첫 출시된 문경사랑상품권 사용 시연을 펼치고 있다. /문경시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문경(경북)=정성우 기자 khror@



지난해 열린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모습. /안동시

### 안동시 오늘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안동시와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회장 김춘택)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야간 상설공연을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중앙문화의거리 중앙무대에서 첫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안동을 대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을 기존 공연장 소인 하회마을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원도심에서도 진행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다. 야간 상설공연은 하회마을에서 실시하는 60분 상설공연을 간단한 단막극 형태로 재연출해 30분 정도 진행한다. 도심지를 찾는 국내외 체류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체 공연을 보기 위해 하회마을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